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美 고용회복 다시 기로에..델타 변이에 등교 지연 우려
 - ◇ (칼럼)-中 정부, 델타 변이 억제와 경제 성장 사이 힘겨운 줄타기
 - ◇ (초점)-외국인 반도체 주식 대규모 순매수.."우려 과도" VS "불확실성 남아"
 - ◇ (초점)-채권시장이 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매파 퇴장' VS '청와대 의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거세진 태국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 한 병원에서 이송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소이 제야 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6일 증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42.1	0.7%	-4.9%	+6.5%	유로	1.1760	-0.9%	-3.7%	+8.9%
100엔 대비	1,038.2	1.1%	1.3%	+1.1%	엔	110.25	-0.5%	-6.3%	+5.2%
유로 대비	1,346.4	1.5%	-1.5%	-2.3%	위안	6.4610	-0.1%	1.0%	+6.7%
위안 대비	176.56	0.9%	-5.8%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208.51	0.8%	15.0%	+7.2%
코스피	3,270.36	2.1%	13.8%	+30.8%	나스닥	14,835.76	1.1%	15.1%	+43.6%
코스닥	1,059.80	2.8%	9.4%	+44.6%	S&P500	4,436.52	0.9%	18.1%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62.24	1.4%	0.0%	+19.8%
국고채 3Y	1.433%	1.6bp	45.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74%	3.6bp	33.9bp	-14.5bp	미국채 2Y	0.212%	2.4bp	9.1bp	-144.0bp
국고채 10Y	1.900%	2.6bp	18.7bp	+3.0bp	미국채 10Y	1.305%	8.0bp	39.3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8.28	-7.7%	40.7%	-20.5%	한국 5Y	18.4bp	-0.1bp	-3.6bp	+0.1bp
금(현물)	1,762.69	-2.8%	-7.1%	+25.0%	일본 5Y	17.3bp	0.3bp	2.3bp	-4.5bp
TR상품지수	3,054.35	1.5%	14.0%	+7.8%	중국 5Y	38.8bp	-0.5bp	10.8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월 9일(월)>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 (11:00)

<10일(화)>

-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배포시)
- 금감원, 원장 임원회의(10:00)
- 한은,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1-19)(12:00)

<11일(수)>

- 통계청, 7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7:30),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15: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8월호) 발간 (10:00)
- 금감원,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 한은, 7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12일(목)>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1차관 브리핑(13:30)
- 한은, 6월중 통화 및 유동성/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3일(금)>

- 금감원,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한은, 7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월 9일(월)>

- 중국 7월 CPI · PPI (10:30)
- 유로존 8월 섀프티지수 (17:30)
- 미국 7월 고용추이 (23:00)
- 일본, 싱가포르 휴장

<10일(화)>

- 일본 7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6월 경상수지 (08:50)
- 미국 7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미국 2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1:30)

<11일(수)>

- 미국 주가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CPI (21:30)

<1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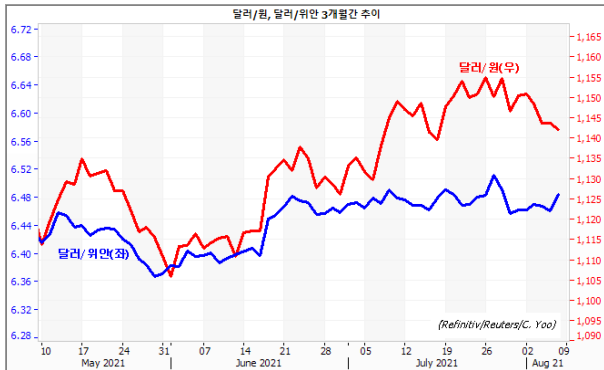
- 미국 7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7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유로존 6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7월 PPI (21:30)

<13일(금)>

- 미국 7월 수출입 물가 (21:30)
-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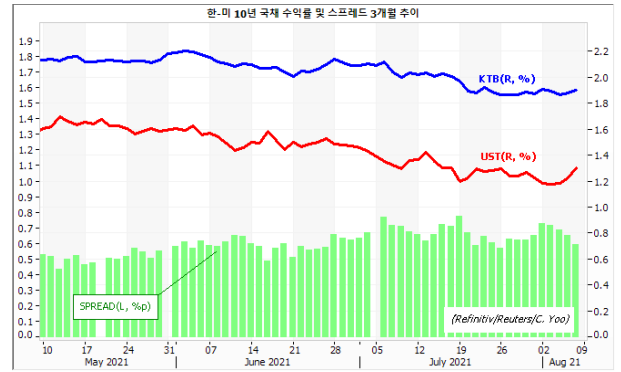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전망>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강 달러 모멘텀 확산 여부에 초점을 맞춘 채 움직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40-1155 원이다.
-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내 주식시장 매매 동향 영향에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단기 박스권 하단인 1140 원 부근으로 미끄러졌지만 추가 하락은 다소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다.
- 미국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시장 전망치를 많이 뛰어넘은 100 만명에 육박하자 달러는 강세 압력을 높였다. 지난 주말 뉴욕 장 후반 달러지수는 0.6% 상승해 지난 6월 이후 최대 오름 폭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3%까지 급등했다.
- 고용 호조에 따른 강 달러 모멘텀 확산 여부와 강도가 이번 주 달러/원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 중 발표될 미국 7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지난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5.4%로 전망치를 훌쩍 웃돈 바 있다. 7월에도 연방준비제도(연준)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는 4%대 상승이 예상되지만, 최근보다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중국도 7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가 발표된다. 국내는 7월 고용 동향이 나올 예정이다.

<채권시장 전망>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다시 상승 시동을 건 미국 국채금리와 대내외 코로나 19 바이러스 동향,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방향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할 전망이다.
-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갑작스럽게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다.
-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위원이 사라짐으로써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
- 반면 고 위원 발탁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다른 금통위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고 위원 이동의 영향을 놓고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9 신규 확진자 수가 8월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 통화정책 전망을 둘러싼 논리 대결과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방향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 압력이 다소 강해질 수 있어 보인다.
- 이번 주 국내 경제지표로는 11일 발표되는 '7월 고용동향'이 중요하다.
-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관건이다. 1~5월 국세 수입은 161 조 800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조 6000 억원 증가했다.
- 대외 지표로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관건이다. 9일에는 중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 11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초점)-美 고용회복 다시 기로에..델타 변이에 등교 지연 우려

워싱턴, 8월 03일 (로이터)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퇴사한 지 거의 1년이 흐른 지난 4월 사라 가드씨는 6살짜리 딸의 원격 수업 관리도 병행하느라 새 일자리에 간신히 적응하고 있었다.

그래서 딸의 학교에서 부모에게 오는 8월 신학기에 대면 수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곧바로 대면 수업을 신청했고, 그 결정에 만족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의 이야기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북쪽에 위치한 딸의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은 교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는 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고, 딸은 아직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아니다. 가드씨는 요즘 딸을 학교에 보내야 하나 고민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원격 수업으로 다시 돌리자니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남편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가드씨의 새 직장은 사무실에 더 많이 출근해주길 원한다. 그는 "(원격 수업은) 나나 남편이 버틸 수가 없다"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은 상당 부분 올 가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일할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려있다. 하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 학부모, 특히 여성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이런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주 "각 교육청이 델타 변이 확산이 잠잠해지기를 한두 달 기다려 보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하기가 쉽다. 또, 다시 일하러 나가기 전에 몇 달 더 지켜보자고 마음먹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학교가 열지 않으면 보호자는 집에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 성장은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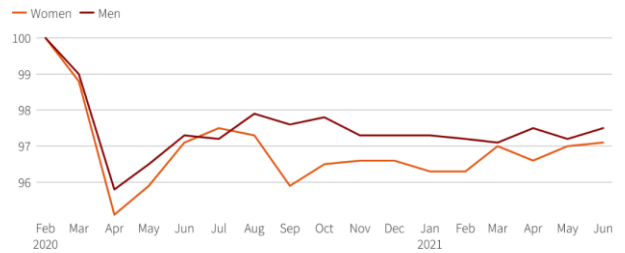
◆ 여성 취업 다시 줄어들까

노동부의 기업 및 가계 서베이에 따르면 최근 구인 일자리가 기록적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미국 내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700만명이 적다.

특히 팬데믹 초기 실직자가 남성보다 더 많았던 여성의 고용 회복 부진이 두드러졌다. 실직자 중 상당수가 지난해 여름까지 노동시장으로 복귀했지만, 학교가 대부분 온라인 수업만 재개해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면서 8월과 9월 20세 이상 여성 100만명 이상이 노동인구에서 이탈했다.

Workforce participati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fell sharply last September at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No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or each gender shown in relation to where it was pre-pandemic.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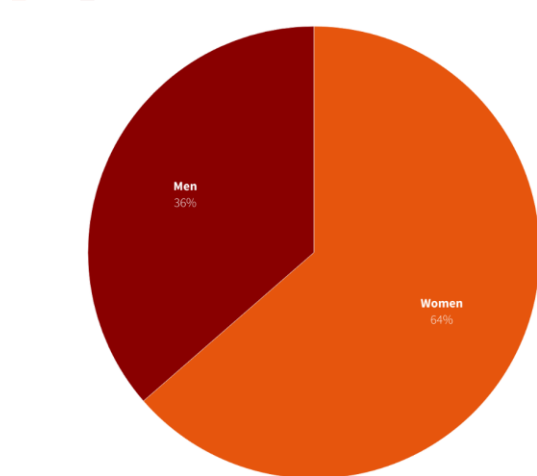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면 수업이 늘고 여성 초과 업종들이 재가동되면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노동력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등교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런 모멘텀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Women getting back to work

Nearly two-thirds of jobs added so far in 2021 among those 20 and older went to women



Note: Figures are the male and female shares of employment growth in the first half of 2021 for all those 20 and older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예방조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웹사이트 버바이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등 8개 주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보스턴과 시카고 등 상당수의 대도시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학령기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텍사스와 7개 주는 학교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16-17세 청소년의 약 40%, 12-15세 청소년의 약 28%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5-11세 어린이들은 빨라도 늦가을까지는 백신 접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세 미만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콜로라도대 안슈츠 의대의 소아감염병 전문의 션 오리어리 박사는 "신학년이 다가오는데 더 전염력이 강한 변이가 확산되고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연령대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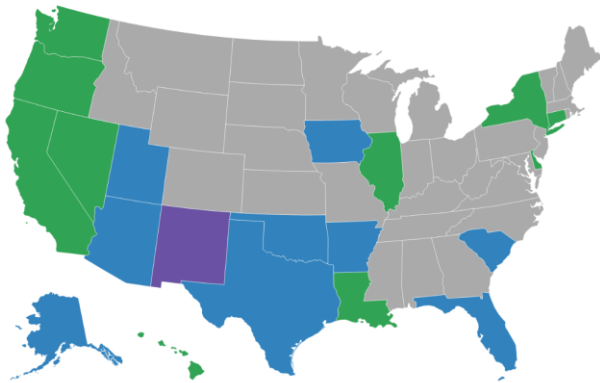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학교가 수업을 재개해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델타 변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더 쉽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교원협회 대니얼 도미니크 회장은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Masks in schools? Depends where you live

Some 25% of U.S. school-age children live in states that bar schools from mandating masks.

● Local flexibility ● Mask mandate banned ● Masks required ● Vaccine contingent



Source: Burbio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인가족연구소의 선임 펠로우인 클라우디아 샘 전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는 갑자기 앞으로 몇 달

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이미 취업 계획을 재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아이들이 12세 이하라 취업을 미루고 파트타임 일을 계속하겠다는 친구들이 늘었다"면서 "시간이 별로 없다. 개학이 임박했고, 구직 시즌도 너무 바빠 다가왔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니 당황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中 정부, 델타 변이 억제와 경제 성장 사이 힘겨운 줄타기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 8월 05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코로나 19 대응과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역 감염자도 60명을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 최초 발원지인 우한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된 후 지난 3일 시민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실시 방침이 발표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며칠간 10여개 성에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리고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백신 접종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의 60%를 접종할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여행지를 폐쇄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작년 봉쇄 조치의 타격에서 아직 회복 중인 서비스 부문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중국 CICC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을 7%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행 계획 보류와 영화 상영 취소 등으로 트립닷컴이나 마오얀엔터테인먼트 등 기업들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항공과 철도 당국은 이미 티켓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좀 더 광범위한 경제 타격은 아직까진 제한적이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델타 변이 확산이 3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미만 깎아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6%를 하회할 리스크도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은 최근 부동산 등에 대한 정부 단속 뿐만 아니라 홍수 등 자연재해와 겹쳐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코로나 부양책을 축소해왔던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제 좀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을 고려해 과감한 조치는 꺼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제한 조치들로 코로나 확산이 초기에 억제된다면 다행이지만 억제되지 않고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이어간다면 중국 경제는 분명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초점)-외국인들 반도체 주식 대규모 순매수.."정점 우려 과도" VS "내년 불확실성 남아"

서울, 8월 4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4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를 중심으로 모처럼 이틀째 대규모 코스피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그동안 거론됐던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와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부각됐다는 견해가 제시됐으나, 내년 이후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확실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후 1시 30분 현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를 중심으로 66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이는 이미 6월 10일 7200억원 이후 하루 최대 코스피 순매수다. 장 마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다면 순매수는 1조원을 넘어 3월 11일 1.7조원 이후 5개월 만의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대 상승 중이고, 코스피도 1% 이상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3개월 최고치로 올라섰다.

▲ 반도체 업황 의구심 해소

이들 양대 반도체 업체들의 2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지난달 주가 하락 배경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업황 정점 우려가 이달 들어 해소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7%와 11.8% 하락해 2020년 10월과 2019년 5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9개월 만에 하락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2.3조원과 9천억원어치 각각 팔아치우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달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규모 5.1조원의 60%가 넘는 규모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한국 7월 반도체 수출 호조,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의 배당 결정 등이 호재로 부각되며 반도체 투자심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해 7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호조가 신규 CPU 출시,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히면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 호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높였다.

간밤 마이크론 주가는 4.1% 급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전문가들 "우려 과도".."내년 불확실성" 목소리도

최근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점점 우려는 과도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3일 자 산업 보고서에서 "주식시장에는 메모리 고점 우려가 많지만, 수요 급감 또는 공급 급증 시그널은 아직 없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이클이 늘어지고 있을 뿐, 상승 사이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도 "모바일과 서버를 중심으로 한 강한 수요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신규 공장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같은 날 보고서에서 밝혔다.

다만, 이면에서는 당장의 과도한 우려 해소에도 내년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가격 인상 저항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4분기 단가 상승폭이 대폭 축소되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내년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전망은 서버를 중심으로 한 IT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이지만, 내년 상반기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초점)-채권시장이 보는 금통위원의 금융위원장 지명..'매파 퇴장' VS '청와대 의지'

서울, 8월 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지형에 미칠 영향을 놓고 채권시장 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고 위원의 이탈로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천명한 당국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금통위원 중 '매 중의 매'를 금융위원장에 발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조기 정책 정상화 동력 약해질 것"

고 위원의 자리 이동을 채권 매수 재료로 보는 일부 시장 참가자는 당장 8월 금리 인상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수긴 하지만 고 위원이 이달 금통위 회의 전에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가장 강력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위원 한 명이 사라짐으로써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은이 고 위원의 후임 추천 작업에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위원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 9개월여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이 임기를 만료하는 게 아니라 임기 중 이동하는 것이어서 한은은 한은법에 의거해 결원 보충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된다.

결국 1년도 채 남지 않은 금통위원의 임명을 위해 한은이 추천 절차를 개시할지는 미지수다. 금통위원이 새로 선임돼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은 임기인 만큼 한은이 추천을 포기하거나 국회와 상의해 부칙을 개정하려고 시도할 여지가 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한 명 금통위원의 공석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A 증권사 채권 딜러는 "고 위원이 이달 금통위에 참석할 가능성이나 후임자가 갑자기 채워질 가능성이 모두 낮다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며 "7월 의사록을 보면 코로나 19 재확산 국면을 좀 더 지켜보자는 위원들이 많았는데 현재 추이라면 관망파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고 위원의 금융위원장 지명 소식이 전해진 후 단기물이 강세로 돌아서는데 8월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곳들이 늘어난 듯하다"며 "그동안에도 굳이 왜 8월에 인상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고 위원의 이동으로 금통위가 한 번 더 지켜볼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청와대 의지 읽어내야..오히려 숫 재료"

반면 문 대통령이 고 위원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고 위원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리 없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청와대가 가진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한은이 한 팀이 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이번 인사에 들어 있다는 지적이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왜 고 위원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는지 의미는 분명하다"며 "부동산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정부와 금융당국, 한은이 합심해서 집값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볼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의 이탈로 금통위 내 비둘기파의 위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D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고 위원이 빠져서 금통위 내 비둘기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의 시장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본다"며 "당분간 6명 체재로 간다면 총재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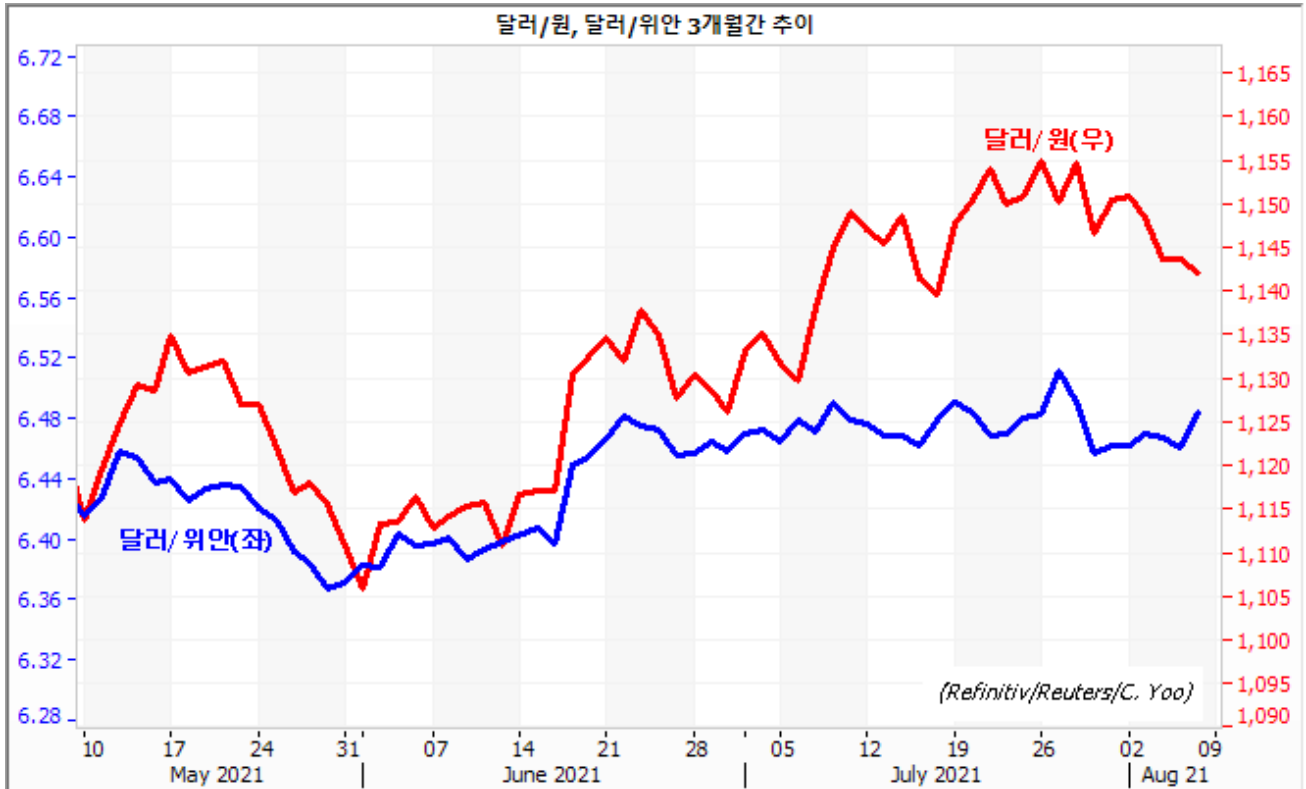
그는 "기준금리가 8월에 인상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인상 결정 이후 이 총재 발언의 톤일

것"이라며 "일단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총재가 추가 인상에 대해 톤다운한 발언을 내놓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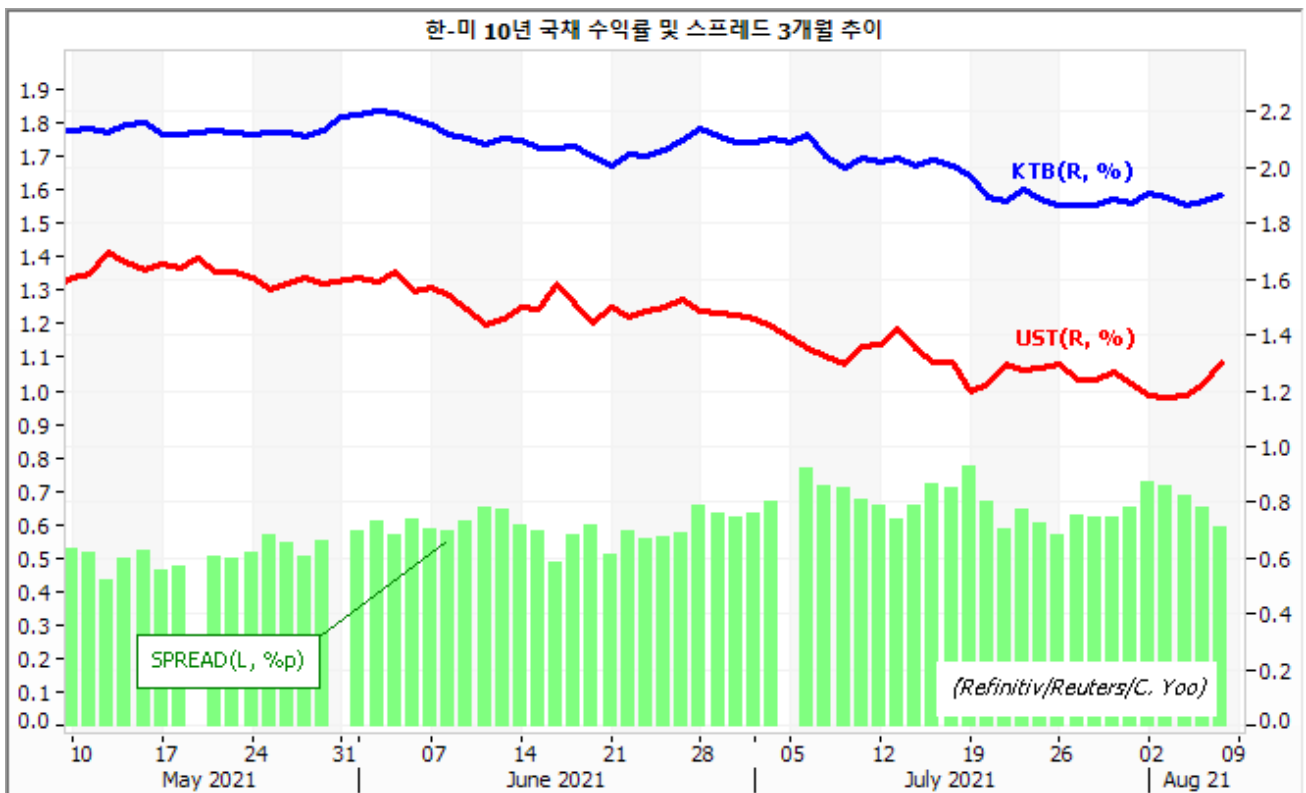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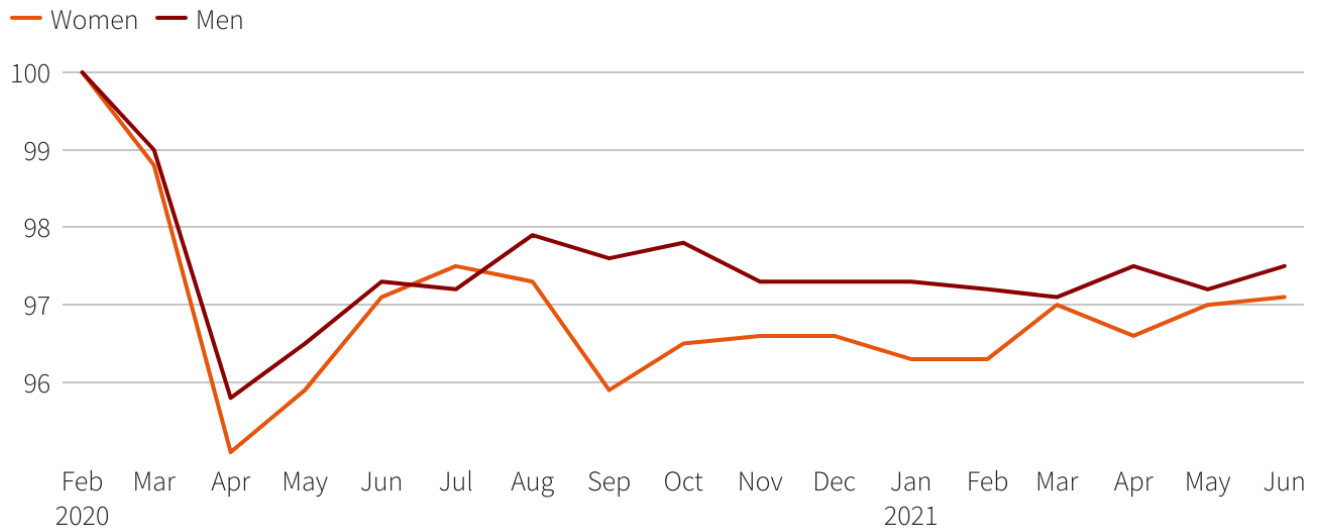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orkforce participati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fell sharply last September at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No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or each gender shown in relation to where it was pre-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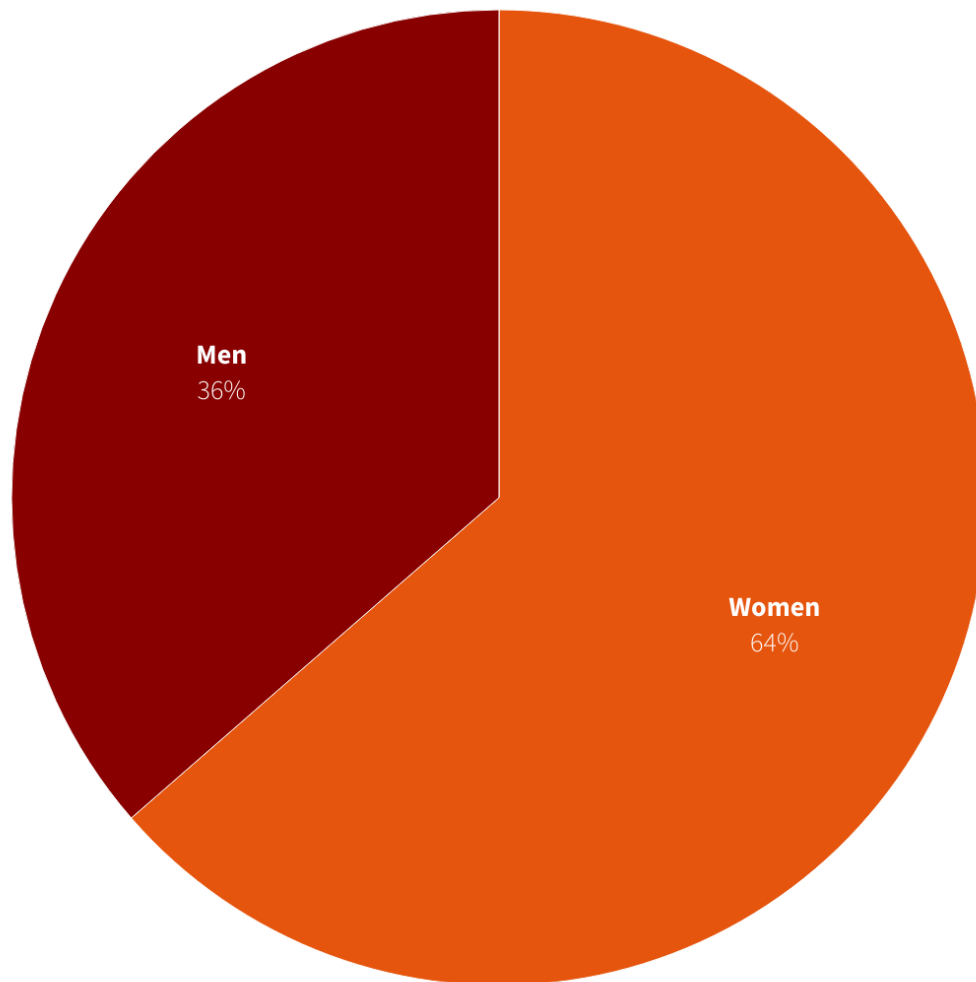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omen getting back to work

Nearly two-thirds of jobs added so far in 2021 among those 20 and older went to women

Women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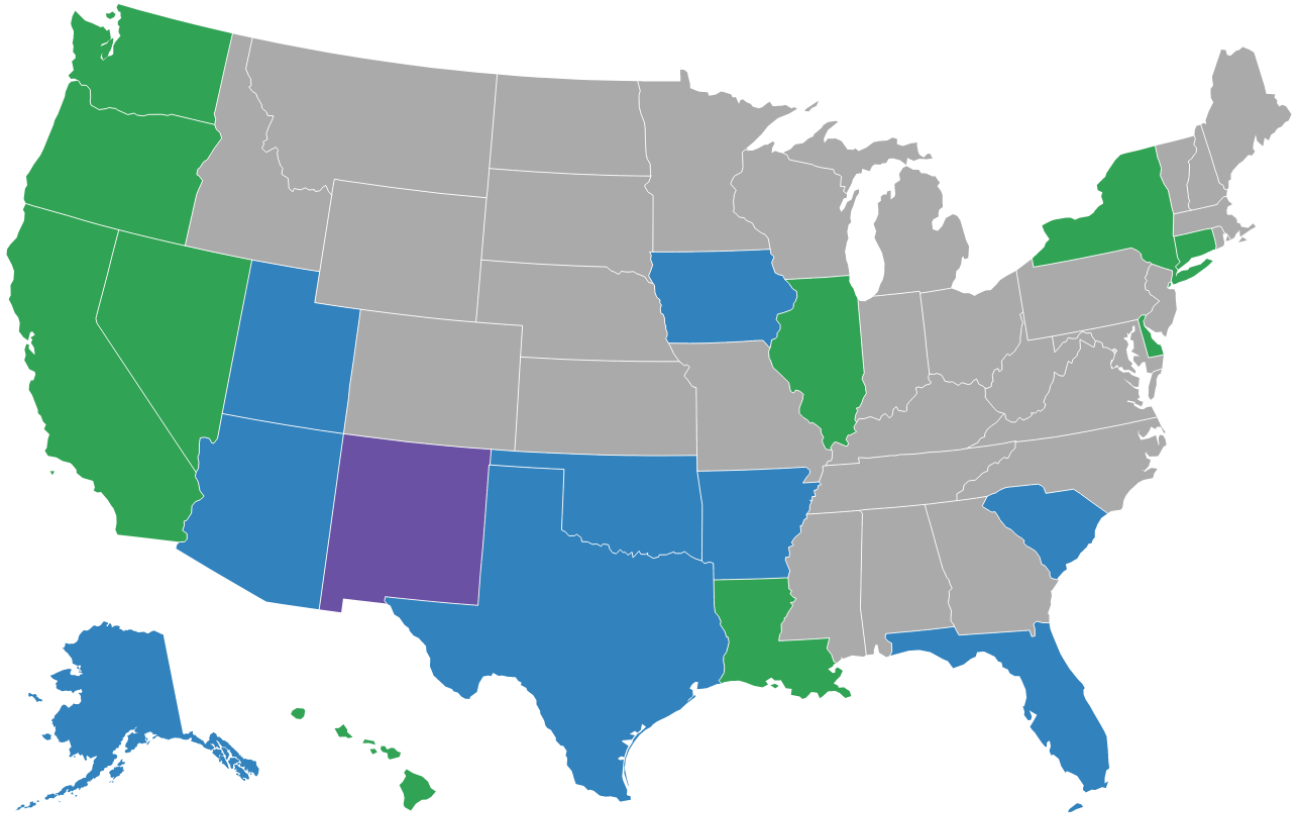
Note: Figures are the male and female shares of employment growth in the first half of 2021 for all those 20 and older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Masks in schools? Depends where you live

Some 25% of U.S. school-age children live in states that bar schools from mandating masks.

● Local flexibility ● Mask mandate banned ● Masks required ● Vaccine contingent



Source: Burbi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